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0호

국가인권위원회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인권위, 10월 전국체전서 인권침해 현장 점검

박규리 연합뉴스 기자

스포츠분야성평등

국내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 보장 미흡...개선 시급

이연지 충남일보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사상 첫 겨울철 개최 카타르 월드컵 흥행 빨간불

강태욱 YTN 기자

2029 동계 아시안게임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 2029년 사우디 개최 확정

최하은 JTBC 기자

체육계 폭력 근절

아직도 맞아가면서 운동을? 체육계 폭력 뿌리 뽑아라

수원일보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인권위, 10월 전국체전서 인권침해 현장 점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19~24일) 현장을 방문해 총 15개 종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테니스·야구·농구·축구·소프트볼·체조·롤러·자전거·태권도 등 전국체육대회 9개 종목, 휠체어농구·유도·배구·태권도·사이클·축구 등 전국장애인체육대회 6개 종목이 대상이다.

인권위는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 시설환경, 경기중 언어·신체·성폭력 등 발생 여부, 언어·신체·성폭력 등 발생 시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 시설물 및 정보 접근 환경 등을 현장 감시한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총 24개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 대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실제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2019년 전국체육대회 14개 주요 종목에 대한 인권침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언어폭력, 성희롱을 한 경기 지도자와 심판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한 심판은 경기장 안내 여성 직원에게 몸매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에서 진 선수에게 욕설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를 점검해 여러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결과 경기진행 관련 규정에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현장 인권상황이 일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경기대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 보장 미흡... 개선 시급

국제적 차원에서 스포츠 인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위선양을 위한 목적 아래 여성 전문체육인의 인권 보장이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스포츠지원포털에 따르면 13~19세 이하부, 대학부 포함 여성 전문체육인은 전국 4만7008명이며 이 중 충청권 지역은 대전 1561명, 세종 605명, 충남 2439명, 충북 2012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조사 결과상 채용·선발 기회에서의 불이익, 폭력, 열악한 근무여건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경험에서는 44%가 차별을 경험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수적 업무나 허드렛일을 맡은 경우'(19%), '남성 동료에 비해 의견이 무시된 경우'(19%), '남성지도자에 비해 직급과 대우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19%) 등 순으로 높았다.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의 경우도 차이가 컸다. 전체 체육인 중 남성 체육인의 경우 2만183원, 여성 체육인은 1만3292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65.9%에 달했다.

문제는 소속팀 지도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 선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등 남성 중심적 환경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감독이나 코치, 선배 선수로부터 이어지는 관행적인 폭력이나 불합리한 경험이 용인된 경우도 있었다. 대학선수가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선수 29%, 중·고선수 17%, 초등선수 10%가 괴롭힘을 경험했다.

지속적인 괴롭힘 가해자 중에서 중·고 선수의 경우 '코치'가 61%로 절반이 넘는 결과를 기록했고, 이어 '감독'(48%), '선배선수'(30%)였으며 대학선수는 '선배선수'가 68%, '코치'(21%), '감독'(18%) 순으로 많았다.

대학선수 기준으로 괴롭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은 '휴대폰 사용, 자유 시간, 외출 등의 제한'이 25%였고 '사적 심부름 등 훈련과 무관한 지시'(13%), '모욕·비난·위협'(10%) 등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선수·지도자 생활에서의 2차 불이익 우려, 장기 합숙으로 인한 선수 간 위계적 문화 형성으로 피해 여성 전문 체육인 상당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체육인들은 출산 후 복귀가 어려운 점에 대해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운동선수 특성상 직업적인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생활체육, 엘리트 스포츠 등 체육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체육인의 역할이 크게 요구돼 이들의 지위 확립, 고용상황 등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서는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시, 성평등담당관제 등 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 단체·기관들이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겨울철 개최 카타르 월드컵 흥행 빨간불

[앵커]

올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은 사막 날씨를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겨울철인 다음 달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인권과 환경 문제 탓에 보이콧을 하는 도시들이 잇따르고 러시아와 이란을 꺼리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흥행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사의 나라를 고려해 겨울철에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국은 다음 달 개막하는 월드컵 기간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버스 3천 대를 포함해 모두 4천 대를 운용하기로 하고 교통 대책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타니 알 자라 / 호스트 컨트리 모빌리티 담당 국장 : 지난 주말, 월드컵 기간 하루 동안 운영을 실험하기 위해 천8백 대 이상의 버스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심에 있는 이 허브들을 활성화했고 경기장에 다른 교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설 등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가 희생되는 등 인권유린 논란이 흥행에 걸림돌입니다. 세계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지금까지 숨진 이주 노동자가 최소 6천5백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 정부의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콧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파리를 비롯해 릴과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거리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피에르 라바당 / 파리지 스포츠 담당 부시장 : 이 행사의 이면에는 환경·사회적 조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대규모 행사의 모델이 아닙니다.]

덴마크 대표팀과 유니폼 공급 업체인 험멜은 로고를 유니폼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표팀 선수들은 가족들을 동행하지 않는 등 현지 활동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인 호펜하임도 월드컵 소식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감으로 결국 러시아가 퇴출당하고 '히잡 시위'와 관련해 이란 대표팀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세계인의 축제라는 취지가 바랜 것도 흥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2029년 사우디 개최 확정

[앵커]

눈과 얼음 위에서 열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가 사막의 나라에서 열릴 수 있을까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사우디 아라비아가 선정됐습니다. 개최 배경에는 사우디 정부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도시 네옴, 축하합니다.]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은 국토의 95%가 사막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가 서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사우디는 600조 원 넘는 돈을 들여 짓고 있는 신도시 '네옴'을 앞세워 유치에 나섰고, 이 곳의 산악지대에 스키장을 포함한 초대형 리조트를 만들어 스키 등 설상 종목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옴의 트로제나 지역은 고도가 해발 1500m 이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눈이 내리곤 하는데, 모자라는 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대회 규모에 맞는 인공눈을 채우기 위해선 엄청난 물과 에너지를 써야 하기에 '자원 낭비'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우디를 향한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올해 베이징 대회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사우디가 동계아시안게임을 통해 인권 탄압 국가 이미지를 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막대한 상금을 내걸며 창설한 리브 골프와 포뮬러 1 대회 개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인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사우디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스포츠 강국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맞아가면서 운동을? 체육계 폭력 뿌리 뽑아라

무력의 상징인 군대서도 인권이 자리잡아가고 폭력행위가 점차 사라져가는 이때 유독 체육계의 폭행과 갑질 등 인권유린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성폭행을 포함한 상습폭행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다지만 2019년 빙상과 유도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인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상습폭행과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2020년 8월 최 선수 사건 이후 스포츠 분야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됐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나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해도 해당 종목단체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중징계 29건, 징계 77건, 경징계 3건, 수사 요구 2건 등 모두 111건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49건만 징계가 결정됐다. 나머지는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다. 중징계를 요구한 20건 중 8건은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로 바뀌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수원시내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수원시는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 지역 내 체육계 선수들의 폭력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수원시 체육회, 수원FC, 수원도시공사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스포츠 폭력’ 피해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6명 중 98명(36.8%)이나 됐다. 피해를 경험한 대상은 여성(47.7%)이 남성(33.8%)보다 13.9% 많았다.

시는 올해에도 수원시체육회 직장 운동부 선수,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선수, 수원FC 선수 등 154명을 대상으로 10월 16일까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2021년 10월~2022년 9월) 경험한 폭력·체벌·따돌림·괴롭힘·성폭행·성추행·폭언 등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조사 중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지만, 인권침해를 당해 건강한 정신을 잃은 육체로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통령 공약 아니었나요?” 엇갈린 尹 정부, 한국야구도 등 돌렸다 [박연준의 시선]

<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52>

지마켓, 가을 스포츠 용품 불티...전년 比 최대 11배↑

<https://zdnet.co.kr/view/?no=20221009111450>

한강에서 펼쳐지는 최정상급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뉴시스 Pic]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0_0002042641&cID=10501&pID=10500

尹대통령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스포츠할 자유 보장"

<https://www.fnnews.com/news/202210071723508275>

“모두가 한마음... 함께 즐기는 희망의 스포츠 축제”

<http://www.uja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741>

[김세훈의 스포츠IN] 한국마라톤 잇단 추락, 파리올림픽에 한국 마라토너는 없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0101453003&sec_id=530101&pt=nv

엘리트 스포츠 선수 리커버리 전담 트레이너 '김태양'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324>

공정성 시비는 이제 끝...체육회, 전국체전 실시간 중계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101039939044004>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본격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5450&ref=A>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